

지역 소식통

완주군, '잡지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완주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제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현재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은 2668건에 5800만원이다.

군은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 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접속해 비회원인 경우에도 간편조회해 본인계좌를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완주군 재정관리과 세정팀(063-290-2329)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지평선 쌀 품질 관리원 모집

김제시는 지평선쌀의 품질 향상 및 고급화로 지평선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평선쌀 품질관리원을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60명이고,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김제시민으로 차량 운행 등으로 해당 논 필지를 찾아가 예찰 및 시료(벼 낱알) 채취 가능한 자로서,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개발담당)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평선쌀 계약재배는 전체 1,433ha를 1,095농가가 하고 있고, 품질관리원으로 선발된 자는 9월에서 10월 중 벼의 생육 상태에 따라 7일 정도 근무하며, 단지별로 계약재배 단지 예찰활동 및 수확기 이전 사전등록 판정, 농가별 단백질검사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근심 먹거리유통과장은 "지평선쌀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선정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100호 조성... 지역산업발전 견인 및 근로자 거주환경 개선 기대

지난 22일 김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김제백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종사자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김제시는 백구특장차산업,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LH와 공동으로 '백구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0호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서를 제출했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김제시는 지역전략산업 입주자 추천 및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LH에서는 지원주택 건설·운영 등 사업을 총괄할 예정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주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으나 이번 공모선정으로 기업들의 청년층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주거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최근 백구특장차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특장차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상생거점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바, 이번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100호 공모 선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웅진읍에 소재한 한부모 가족 사회복지시설 이산모자원에 대해 나눔숲조성을 완료했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숲이 생겼어요"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이산모자원에 녹색나눔 숲 조성

완주군 한부모 가족 사회복지시설에 숲이 생겼다.

23일 완주군은 웅진읍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이산모자원에 대해 나눔숲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복권기금지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한지 1200㎡에 호랑가시 등 25종 7000여주를 식재해 시설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색나눔 숲으로 탈바꿈시켰다.

나눔숲에는 편백숲 치유정원, 계절이 주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유실수원, 숲속도서관, 숲속놀이터를 설치해 정서적 안정과 심신 치유를 위한 행복공간으로 조성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숲과 원터울 조성해 시설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전액 녹색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복지시설 나눔숲이 복지제도 사각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녹색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정서함양과 심신치유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전 부시장, 문화재 답사 통한 현장행정 펼쳐

김제시, 관내 유·무형 문화재와 지역발전과 연계 가능성 모색

김제시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허전 김제부시장과 서원태 문화홍보특별실장등 문화재 관련 실무담당자들과 함께 호남 최대의 사찰이자 미륵신앙의 성지 금산사와,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오랜 역사를 간직한 흥복사, 그리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 문화의 산업화와 지역경제발전의 길을 모색가능한 한 사기장과 옹기장을 방문하고 현대시대의 대가라 평가받고 있는 금산사 원광스님을 따로 방문하여 지역발전 연계 가능한 유·무형 문화재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금산사에서는 금년 6월 새로 주지로 임명된 일원스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국보 및 보물10여점을 보유하고 우리나라 정신문화사적 의미가 매우

큰 금산사의 문화재 보존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또 현대사회 물질문명의 편리성에 뒤로 밀려난 전통지기와 전통옹기의 산업화방향과 교육기관과의 연계가능성을 모색하기위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기장 장동국선생과, 옹기장 안시성 선생을 만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등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예전 시공간관람에 따른 근현대 서예계의 전 반적동향과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등을 받기위하여 독특한 필체로 현대서예계의 대가라 평가받는 금산사 원광스님을 방문하여 2시간여에 걸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김제시는 지역발전의 키워드이



자 감점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고민중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 첫단계로 근대실학과 서화의 대가인 석정 이정지 선생의 생가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추진을 완료한 바 있으며 선비문화마을을 조성등을 검토하여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형순, 장승환)는 지난 22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상반기 특화사업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후,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및 민간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으로 장승환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총 13명의 위원이 선출되어 백



구면의 주민복지를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승환 위원

장은 "요즘처럼 힘든 때, 봉사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위원님들을 보니 2년 동안 함께할 마음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며, "위원님들과 함께라면 2년 후 더 행복한 백구가 되어있음을 확신한다.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위원들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혀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한국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MOU 체결

김제시는 지난 22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산업·농공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한국중부발전 사업본부장 노용환, 김제시 부시장 허전 등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업무 추진 방향성을 논의하고 사업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김제시+한국중부발전(주)는 산업 및 농공단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중부발전(주)은 사업총괄, 기술지원, 지분출자 역무를 담당하며, 김제시는 사업개발 중 필요한 인허가 및 민원등을 담당하여 공공에너지 자립화 및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상호 노력을 약속 하였다.

이번 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김제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발전을 통하여 그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 및 농공단

지 내의 에너지 자립화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건설 예정인 공공에너지 자립단지는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르면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해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김제시를 대표적인 협력 지자체로 선정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허전 김제시부시장은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추어 그린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전체가 혜택을 공유하고 경제활성화 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